

제44회 무역의 날 기념식 축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

마흔네 번째 '무역의 날'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상 받으신 분들께 특별히 축하드립니다.

참여정부 내내 무역의 날이 제일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계속 축하하면서 지내 왔습니다. 올해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역 규모 7천억 달러, 수출 3,600억 달러라는 놀라운 기록들을 여러분이 올려주셨습니다. 2002년에 비해서 모두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매년 1천억 달러 정도씩 성장해 왔습니다.

기름 값이 계속 올라가고 원화가 계속 절상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성과라서 각별히 값지고 대견스럽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증거라서 무척 마음이 놓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샌드위치' 다 또는 '넛크래커' 다 하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만큼 이루어 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역시 비관적이고 불안한 전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여

러분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측량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때에는 항상 좀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기업인들은 우리가 예측하고 측량하지 못했던 많은 기적들을 이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미처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수준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계속 이루어 나갔습니다.

우리 노사 관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고, 또 외국에까지 소문이 나 있기는 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이 작업 현장에서 이루어 낸 성과, 혁신의 땀방울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혁신 주도형 경제라는 것을 새로운 전략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한 지도 몇 년 됐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기업들도 혁신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정부도 소위 혁신 주도형 경제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부 바꾸어 왔습니다.

그런 것이 제 기억에는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닌데, 우리 기업들이 우리 경제를 혁신 주도형 경제로 이미 바꾸어 놓은 것 같습니다. 궤도에 확실하게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유가·환율, 그 밖에 세계 경제의 여러 가지 변동을 이처럼 잘 헤쳐 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하는 것 보면 아마 혁신 주도형 경제로 온 것 아닌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특히 와이브로나 지상파 DMB는 제가 세계 어디에 가든 항상 자랑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국가원수들은 아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제 얘기를 듣습니다.

그 밖에도 필요할 때마다 우리 한국전력의 경영이나 또는 기술력, 우리 원자력 자랑도 하고, 조선 자랑도 합니다. 휴대폰은 제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꺼내들고 이게 한국제라고 얘기해 주기 때문에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쾌거입니다. 특히 와이브로 기술이 제3세대 이동통신의 국제 표준으로 채택된 것은 한국경제가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걱정도 있습니다. 수출은 늘고, 국민소득도 전체적으로 늘고, GDP도 늘

고 하는데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늘기는 느는데 느는 속도가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내수로도 확산이 좀 안 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이 잘 살아나야 합니다. 수출 효과가 그와 같은 방향으로 파급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고, 지원정책을 전부 시장친화적인 생태계 조성이라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제조업과 같은 지원을 함으로써 서비스도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우리 중소기업 중에 혁신형 중소기업이 8,500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통계로 이것이 1만 7,500개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도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이 1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부품소재산업은 347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만큼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대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따른 동반수출이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경쟁력이 있으니까 우리 중소기업이 따라 나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깎아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하지만, 그중에서도 지식서비스 수출보험 제도 도입, 서비스 수출금융 지원 등 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정권이 어디로 바뀌든 간에 중소기업에 대한, 또 특히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 후보가 나와서 우리 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공약하고 있는데, 기술혁신과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설사 하기 싫은 분이라도 대통령이 되면 이

흐름은 거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동에 가 보면 우리 플랜트 수출이 정말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동 가서도 참 떳떳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대접도 잘 받았고요. 우리 기업들 덕분입니다. 전자무역망 구축을 통해서 무역절차를 간소화하고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데에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정부가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개방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칠레, 아세안 등과 자유무역협상은 발효되어 있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한·미, 한·EU,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상도 다 발효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뛰어야 하는 마당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것, 경쟁의 수준이 이 수준까지 왔다는 것, 말하자면 이제 세계무대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심어 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기업들에게 약간의 불안요인임과 동시에 도전의 자극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무역에 있어서, 관세에서 얻는 이익보다도 이와 같은 문화적 자극, 그리고 우리 한국의 경제 시스템이 세계적인 경제표준과 같이 가게 된다는 점, 이런 데서 생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들이 훨씬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방을 그렇게 이해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심의가 되지 않고 딱 잠자고 있습니다. 좀 걱정되지요. 그런데 제 생각은 어느 나라라도 대통령 선거 때 국회에서 그거 끄집어 내서 옥신각신 싸우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우리 국회가 잊어버리지 말고 꼭 비준을 해서 국제적으로 한국이 책임 있게 행동하는 국가로서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총선이 또 남아 있고,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추구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경제에 대해서 또 하나의 기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남북 경제협력입니다.

민족의 통합이라는 이 가치가 원래 큰 것이기 때문에 민족통합은 정치적인, 이념적인 가치로만 항상 평가돼 오고, 또 한쪽의 반대편에서는 이념적 대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독재자들하고 맞대놓고 서로 친구가 되려고 하느냐면서 거부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연한 통일의 열망이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강한 거부감이 공존하는 가운데 남북관계가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점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더 뒤로 미룰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미루더라도 우리 경제가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잘 풀리면 우리 경제가 또 한번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의 우리 우환을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가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 통일을 얘기합니다. 누구 통일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북의 경제력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념적 차이도 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력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갑자기 무리하게 통합해 놓으면 엄청난 비용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한 것보다 못한 결과가 돼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남북 간에 경제력 격차를 줄여 가야 통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지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북한의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의 기회이자 교역무역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남북 간에 교역을 열고, 투자를 열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하여튼 지난번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이달 총리회담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 접근을 보았습니다.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3통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고, 다음 달부터 정기화물열차도 개통됩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기본적으로 충돌의 위험을 배제하자는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지금 좀 느리게 가지만 앞으로 잘 갈 것입니다.

조선협력단지에 대해서 남북 모두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무척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조선업이 그동안 겪어 왔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2, 3년 이후에는 상당 부분 풀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제 북한은 몇 가지 풀지 못한 갈등이 있고, 해결돼야 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젠 이상 더 위험한 존재가 아니고 기회의 땅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안보관,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세계적 수준에 있어서의 안보관,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안보관에 의해서 한반도를 바라보고, 동북아시아를 바라보고, 그리고 미래를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장애와 애로가 있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계속해서 다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남북 경제에서 기회를 찾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새로 열리는 한반도 경제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그런 역량을 가진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물에서 수출 5천억 달러,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단기적인 비전으로 내세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음 정부 끝나기 전에 이 목표를 거뜬히 달성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그 모든 장애 요소들을 거뜬히 다 극복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외환위기까지도 다 극복했습니다.

양극화가 아직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또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특히 우리는 외환위기 때문에 더욱 심각해졌는데, 참여정부 동안에 일단 악화되는 것은 대개 좀 완화시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소득은 아직도 악화되고 있지만 가처분 소득은 개선의 방향으로 이미 들어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부의 재정에 의한 소득격차의 시정효과가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는 약 40%까지 소득격차를 시정하는 효과를 정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5%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여정부 와서 2배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멀리 성공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점에 관해서는 우리 경제계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함께 걱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만 잘 풀리면 정말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기회 균등, 기회의 경쟁력,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그로 인한 많은 비용,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다루어 가기만 하면 한국의 장래는 밝습니다. 꼭 성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세계의 경제 번영과 경제 안정, 그리고 세계적 수준에서의 빈곤 문제 해결, 예를 들면 2000년에 유엔이 발표했던 '밀레니엄 프로젝트' 같은 곳에도 한국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아주 품격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잘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떠나면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크게 부끄럽지 않게 제 임기를 마감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은 여러분의 성공 덕분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